

“실크산업,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변화·혁신에 도전해야”

박태현 경남 진주 순실크 대표

실크 기업 2세 경영인 동참 강조
가방·마스크 개발 등 영역 넓혀
‘신선한 시도’ 재부흥 선도 기대

“비록 실크산업이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실크의 가치는 여전히 높습니다. 혁신을 이룬다면 부흥을 이룰 것이라 확신합니다.”
진주실크는 1990년대까지 경남 진주시의 지역 경제를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크의 대중화가 이뤄지면서 호황기를 누렸고 ‘진주 뉴퐁’이라는 실크 대표 브랜드까지 만들어졌다.

1980년대 진주시 지역 제조업체는 500여 곳이었는데 이 가운데 실크 관련 업체가 130여 개에 달했다. 지역 총생산의 20%, 지역 제조업의 33%, 지역 수출의 39%를 책임질 정도로 지역의 주력 산업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진주실크는 빠르게 침체기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대다수 기업가들이 시설 투자와 연구 개발 등에 소홀했고 시대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 130여 곳에 달했던 실크업체는 현재 33곳에 불과하다.

박태현(55) 진주 순실크 대표는 2세 경영인으로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30년 가까이 회



사를 운영하고 있다. 실크산업의 화려했던 시절을 눈으로 직접 봤기에 그만큼 아쉬움도 크다.

“가장 잘 나갈 때 지역 업체들이 미리 준비를 했다면 실크산업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겁니다. 어쩌면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진주에서 활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크 소재가 좋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1990

년대 이후에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맞추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변화와 도전을 해야 합니다.”

박 대표가 생각하는 실크산업은 혁신에서부터 비롯된다. 한때 대표적인 실크 제품이었던 넥타이와 스카프의 소비량이 급감하면서 업계에서는 실크산업이 끝났다는 말이 나왔다. 그러자 박 대표는 눈을 돌려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실크의 은은함을 강조한 무드등을 비롯해 가방과 핸드폰 케이스 등을 개발했다. 여기에 BTS 한복 정장으로 유명한 디자이너 리을과 협업해 한복의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는 재활용이 가능한 실크 마스크를 개발해 전국 곳곳에 납품하고, 진주 대표 캐릭터 ‘하모’가 인기를 끌자 하모 전용 실크 의복을 만들기도 했다. 실크 제품 역시 유행을 선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셈이다.

“실크는 한복과 넥타이, 스카프만의 소재라는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크 원단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많아요. 그동안 몰랐고 생각해보지 않았을 뿐이예요.”

박 대표가 실크산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인 단순히 향토산업이기 때문은 아니다. 그만큼 실크가 가진 장점이 무궁무진하다고 믿고 있다.

실크는 합성이 아닌 천연 섬유로 피부에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는다. 여기에 단백질로 이뤄져 있어 건강·의료·공업 등 생활 자재로의 활용도 가능하다.

실제 박 대표는 현재 실크와 첨단산업의 융복합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중기청 산하연 결레버 사업에 선정돼 반도체 배터리 제작을 위한 세라믹 섬유 제작 개발에 참여한 상태다. 과거의 산물인 실크도 미래 동력 산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실크 원료에서 추출한 양질의 단백질을 커피 원두에 입힌 실크커피도 개발했다. 여기에 더 나은 맛을 찾기 위해 연구를 거듭했고, 마침내 지난해 ‘진주 실크커피 뉴퐁’이라는 커피 브랜드를 만들었다.

끊임없이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박 대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실크가 일상생활에 갖들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혁신에 동참하고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있다.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 뭔가 성공했다는 말을 하긴 이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신선한 시도들이 실크산업에 새로운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실크산업에도 2세 경영인들이 하나 둘 늘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실크산업의 부흥기를 이루길 기대합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차경천 교수, 소비자학회장 취임

동아대학교(총장 이해우)는 최근 차경천 경영학과 교수가 한국소비자학회 제26대 공동회장



에 취임했다고 밝혔다. 1990년 5월 창립된 한국소비자학회는 회원수 2500여 명의 국내 소비자 분야 대표 학회이다. 소비자에 관한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 학제적 연구를 통해 소비자 연구의 발전과 소비자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차 교수는 계명대 김성숙(경제통상학부 경제금융학전공) 교수와 공동으로 1년간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변현철 기자



‘레슬링 넘버원 체육관’ 개관

부산시레슬링협회 소속 ‘레슬링 넘버원 체육관’(대표 김은서)이 최근 부산 수영구 남천동 반도빌딩 1층에서 개관했다.

개관식에는 부산레슬링협회 이현창 회장, 1974년 몬트리올올림픽 금메달 양정모, 1984년 LA올림픽 동메달 손갑도, 2004년 아테네올림픽 금메달 정지현 씨를 비롯해 부산시체육지도자협의회 오정몽(전 부산레슬링협회 회장)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은서 대표는 부산 여성으로는 처음 레슬링 체육관 관장을 맡게 됐다. 그는 부산 초등부 전문 지도자, 부산시청 선수, 부산 남부경찰서 무도 교관, 레슬링 국가대표를 역임했다. 특히 개관식에서 양정모 씨가 몬트리올 올림픽 시상식 사진 원본을 기증했다.

강성철 선임기자

■ 화측

△이승수 형의영 씨 장남 주환 씨, 윤한영(전 부산일보 경영지원국장) 김은희 씨 장녀 정원 씨, 10일 낮 2시, 서울 강남구 더컨벤션 신사 4층 그랜드볼룸, 010-9332-9193.

△박성진 김경애 씨 장남 준영 씨, 이성용 윤희선 씨 차녀 윤영 씨, 10일 오후 3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 010-2585-7111.

△박희선(전 택시공제회 지부장) 유연순 씨 장남 석교 씨, 박창호 안성자 씨 장녀 수경 씨, 10일 낮 12시,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 호텔 그랜드 볼룸, 010-9766-7753.

부산 서구 - 대성문 D&G(주) 업무 협약식



서구청·대성문D&G, 드림아파트 건립 협약

부산 서구청(구청장 공한수)과 남부민동 부산드림아파트 시행사인 대성문D&G(주)(대표이사 박해정)가 지역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힘을 모은다.

서구청은 지난 2일 구청장실에서 공한수 구청장, 채창호 대성문(주)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드림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부산드림아파트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건설 임대주택이다.

남부민동 72-20번지 일원에 오는 2024년 준공 예정인 부산드림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41층, 연면적 2만 5883.48㎡ 규모로 공동주택(아파트) 193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 80세대, 근린생활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한수 구청장은 “남부민동 부산드림아파트는 우리 구의 첫 공공지원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지역 청년층의 주거 안정은 물론 젊은 사람들의 유입으로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성철 선임기자 shgang@

한국거래소 ‘친환경 나눔 화분 만들기’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지난 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임직원과 가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두꺼비 반려 식물 기부용 ‘오피스 가드닝 친환경 나눔 화분 만들기’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 활동은 지난 5일 환경의날을 맞아 재사용 가능한 펠트지와 버리는 커피 가루를 활용한 친환경 화분을 제작해 환경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펼쳐졌다. 또 독거 어르신에게 반려식물을 기부하며 나눔도 실천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이번 활동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KRX 패밀리가 땀’이라는 임직원 가족 참여 봉사 활동의 첫 번째 실천이다.

변현철 기자 byunhc@

건보공단 부울경본부, 모라복지관에 후원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장수묵)는 지난 5일 모라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후 경로당 환경 개선과 ‘영양 가득 The 건강한 밥상’ 제공을 위한 후원금 기증식을 가졌다.

노후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된 소규모 경로당에 대해 환경을 개선해 주는 활동이다.

‘영양 가득 The 건강한 밥상’은 모라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복지관에서 영양 가득한



보양식을 제공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했다.

강성철 선임기자



영산대, 동아리 연합 발대식

와이즈유 영산대학교(총장 부구욱)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최근 와이즈인재개발원과 ‘2023학년도 동아리 연합 발대식’을 진행했다.

발대식에는 취업동아리, 진로동아리, 취업서포터즈, 창업동아리, 일본해외취업동아리(OJS), 포레상담자(활동가 과정), 지역선도취업동아리 소속 학생 50여 명이 참석했다.

변현철 기자



기장군장애인체육회 창립 총회

부산 기장군청(군수 정중복)은 최근 부산은행 연수원 본관 대강당에서 기장군장애인체육회가 창립 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창립 총회는 장애인 단체, 체육회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총회는 장애인체육회의 공식적인 창립을 선언하고 초대 회장으로서 정중복 기장군수를 추대했다. 또한 창립 이사회 구성, 장애인체육회 운영 규정 결의 등을 위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강성철 선임기자



동래구청, 협동조합 설립 교육

부산 동래구청(구청장 장준용)은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대해 주민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올바른 이해와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협동조합 설립 교육’을 오는 2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이해와 설립, 1대1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성철 선임기자



동래구청, 농축산물 원산지 비교 전시회 부산 동래구청(구청장 장준용)은 최근 지역 주민의 식품 안전성과 원산지 식별 능력 향상을 위해 농축산물 원산지 비교 전시회를 개최했다.



부산진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부산진소방서(서장 류승훈)는 최근 소방서 119청소년단원인 항동중학교 학생들과 학교 인근을 대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시행했다.



신라대, 효심데이케어센터 등 협약 신라대학교(총장 허남식) 평생교육원은 최근 치매 전문 인력 양성 활성화를 위해 효심데이케어센터(대표 김성윤), (주)가이드잡(대표 한재철)과 3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개금2동 주민자치회 임의회의 부산 부산진구 개금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현명옥)는 최근 센터 2층 대강당에서 ‘제2기 개금2동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과 임의회의’를 개최했다.



대청동주민센터 ‘파릇파릇 새싹교실’ 부산 중구 대청동주민센터(동장 박도균)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승규)는 지난 2일 대청동주민센터에서 ‘파릇파릇 새싹교실’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건보공단, 금연 캠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장수묵)는 최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유관기관과 금연 캠페인을 진행했다.



남구장애인협회, 장애인 인식 교육 (사)부산시남구장애인협회(회장 정찬용)는 지난날 31일~ 31일 1박 2일간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 66명이 참여한 ‘오늘보다 나은 내일’ 장애인 인식 인력 교육과 세미나를 가졌다.



민락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봉사 기념장 부산 수영구 민락동 행정복지센터(동장 홍임)는 최근 민락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서동식)에서 30년간 활동한 임성배, 김재창, 권승달 씨에게 봉사 30년 기념장을 수여했다.